



New Electropia를 향하여

플리머 애자의 국산화 주역

# 평 일 산업 (주)

3S(SAFE! SIMPLE!! SPEE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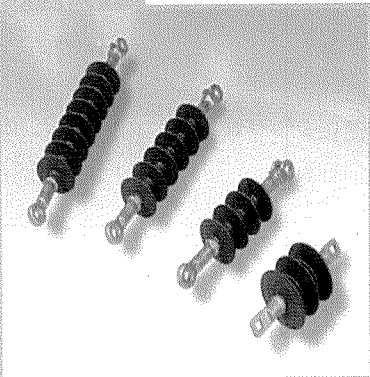


대표이사 김 봉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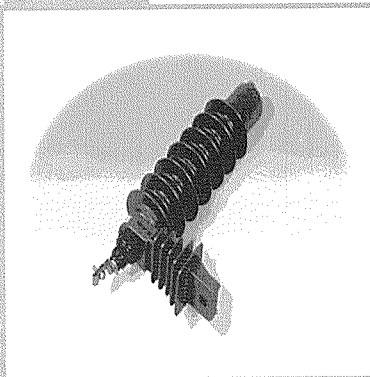
**풍** 요로운 삶을 위한 기술의 창조! 미래를 개척하는 기업! 평일산업(주)(대표 김봉주)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중심의 사회이다. 각자의 개성과 역할을 존중하고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들 그 각각의 노력이 하나 되어 거대한 힘으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기업,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세계 제일을 지향하는 중전기기 전문 제조업체로의 비상을 추구하는 평일에 들어서자마자 3S인 위의 Work Motto가 한 눈에 들어왔다.

완벽한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며, 콤팩트한 것이 가장 단순한 것이고 정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스피디한 것이라는 강배식 부사장과 유근양 영업본부장의 강인한 어조를 통해, 과연 오늘날의 평일이 Frontier Spirit을 겸비한 플리머 애자와 피뢰기의 선두 주자라고 자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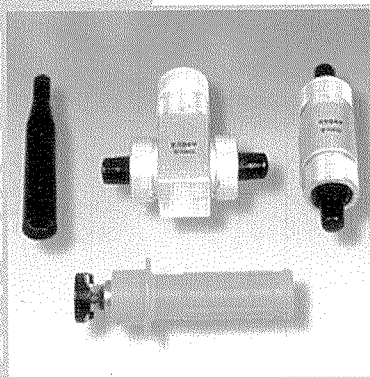
1970년 회사 창립이래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에만 전념하며 전기업계의 중전기기업으로 성장한 평일은 기술개발이 취약하여 수입에 의존한 70년대부터 선진국의 각종 고전압 절연 중전기기 및 부품소재 판매를



POLYMERIC DEAD-END INSULATOR



PYUNG-IL SURGE ARRESTER



BY-PASS SYSTEM COMPONENTS

시작으로 1985년 설립자인 현 김봉주 사장이 경기도 양주군에 공장을 설립하여 각종 케이블 접속재 및 예폭시 부상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내 중전기기의 국산화를 선도함은 물론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특히 1996년 배전용 폴리머 현수 애자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현재까지 약 250만개를 한전 및 철도청에 납품함으로써 국내 애자 산업의 혁신을 이룩하였다. 그로 인해 98년 200억원 수준의 매출액이 2002년에는 사원 한 명 당 2억을 훨씬 웃도는 500여 억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2002년 2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애자와 케이블 접속재 및 종단재가 평일의 주력 제품이다. 이외에도 전계 분포가 원활하고 전기적 특성과 작업성이 우수한 조립형 구조의 종단 접속재와 직선 접속재, 개폐기·변압기용 부상 및 접속재, 저압용 접속재의 최대 현안인 분기성을 해결한 지중 저압 접속장치, 완벽한 전계차폐로 수목의 접촉지역이나 염진해 지역의 선로고장을 방지하는 환경 친화적인 가공케이블의 접속기자체, 배전 설비를 무정전으로 안전하게 작업하는 By-pass System 접속재, 지중용 개폐기, 가공용 개폐기,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OLSB 등 배전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개폐기 분야까지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전문 중전기제조회사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폴리머 피뢰기, 폴리머COS, 절연통 보호장치, 전력량계 등 약 1,300여종의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1998년 8월 평일은 외국에 의존하였던 전남 흑일도-마삭도간 22.9kV 해저 케이블 접속재 시공을 공사기간 8개월의 단축과 시공비 40%(9억원)의 절감효과와 함께 국내 최초 순수 국산기술로 성공시켜 다시 한 번 전기업계 의 주목을 받았다. 이렇듯 중전기 절연자체의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해 온 평일은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세계 2번째로 「원자력발전소용 전기관통구」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원자력 사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 가고 있다.

전기 관통구는 원자력발전소의 돔 내·외부에 고압동력, 저압전원, 폐쇄회로 TV용 케이블 등 각종 전원과 제어계통을 공급하는 설비로써 가스누설, 절연, 내방사성, 내진성 및 내열성 등 모든 열악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기술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평일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미래에 도전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평일은 1991년 부설 기술연구소(소장 이철호)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고전압 절연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오늘날 국내 폴리머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매김 하기까지는 많은 역경이 있었다. 특히 30년 정도의 기술차이가 나는 외국의 폴리머와 경쟁하기 위해서 국내 폴리머의 선두업체로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했다. 외국의 폴리머를 시험, 분석, 평가하는 것과 아울러서 국내의 독자적인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이에 고전압 절연소재의 국산화 개발을 시작으로 신소재 절연재료인 폴리머 원재료 국산화, 송전용 폴리머 현수애자 개발, 원자력 발전소용 전기 관통구 설비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는 등, 자체의 핵심기술로 첨단 제품들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냄으로써 명실공히, 미래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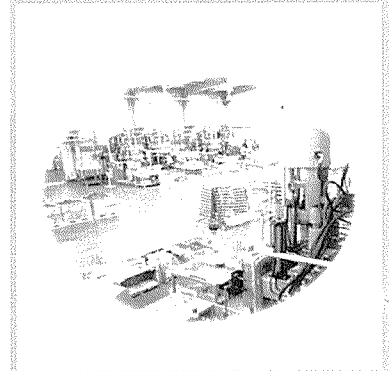
자체의 기술력으로 도전한 평일의 원재료 분야 개발 노력은 케이블 접속재 100% 국산화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런 평일의 국산화 노력은 송배전용 폴리머 애자를 비롯하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오던 EPDM 고무, 실리콘 고무, FRP코아 등의 제품군까지 그 영역을 넓혀 원가 절감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에도 막대한 기여를 해 오고 있다.

또한 각종 첨단 검사장비를 갖추고, 완벽한 품질관리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ISO 9001 인증, 원자력 인증(KEPIC), 기계류부품소재 품질인증, NT 마크를 획득하였고 제품생산에서 납품 후 사후관리까지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는 품질혁신 경영시스템을 도입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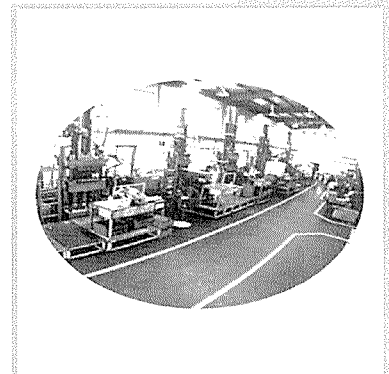
또한 평일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아프리카, 미주 등 해외로 기술력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고객에게 보다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AS팀을 운영,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고객의 불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장 복구 및 사후 처리에 있어서도 보다 완벽한 서비스를 자랑한다.

철도의 전철화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철도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비롯하여 백만불 수출탑의 수상,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공로표창, 남세 우수기업으로 재정경제원 장관표창, 중소기업청·경기도·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유망 전력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시대, 세계가 인정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경영을 표방하는 평일의 새로운 비전은 바로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이다. 인간을 위한 새로운 첨단산업환경을 만드는 기업 평일은 이제 21세기 초일류기업을 향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POLYMER INSULATOR LINE



CABLE CONNECTOR LINE